

카자흐스탄, 중국 연운항시에 철도 화물터미널 건설

작성자 : 강명구(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)

작성일: 2013년 11월 19일

■ 카자흐스탄, 중국에 철도 화물터미널 건설 MOU 체결

- 2013년 9월 시진핑의 카자흐스탄 방문 시 중국의 연운항시에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MOU 체결
 - 연운항시에 카자흐스탄의 철도 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카자흐스탄은 자국이 건설한 철도 화물터미널을 통해 화물을 선적함으로써 수익창출 가능
 - 철도 화물터미널 ① 연운항에서 → ② 난주(兰州, Lanzhou)¹⁾ → ③ 알라산코우 → ④ 알마티 → 유럽으로 연결<아래 그림 참조>
 - 연운항(련운강, 连云港)은 중국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, 신포구, 해주구, 연운구, 운태구 4개구와 경제기술개발구, 동해, 감유, 관운, 관남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음
 - 1992년 12월에 개통된 신대륙간 철도의 시발점으로, 중국대륙을 동서로 횡단하고 있음. 총 길이 10,870km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각국을 경유하여 네덜란드의 노트르담까지 연결

- 2012년 11월 중순 현재 철도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(ТЭО, технико-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)를 실시 중에 있으며, 사업타당성조사 이후 2014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연운항시에 카자흐스탄 터미널 건설 착공

- 동 화물터미널 건설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철도 화물운송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
 - 2013년 들어 카자흐스탄과 중국간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급증
 - 2013년 1~9월 양국간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% 증가
 - 특히, 2012년 12월 22일 알마티-호르고스-중국 노선 개통으로 양국 간 화물 운송량은 증가

1) 중국 간쑤성[甘肅省] 성도

■ 중경-신장-유럽 철도노선과 연결로 동남아의 화물도 운송이 가능할 전망

- 중경-신장-유럽 철도노선은 2011년 9월 28일 중국 중경에서 카자흐스탄, 중국, 러시아, 폴란드, 독일의 관계 장관들이 모여 철도 협력에 대한 MOU체결로 구축
 - MOU체결로 중경-신장-유럽을 연결하는 협력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,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으로 최초로 국간 합의에 의해 구축된 철도운송회랑
 - 동 철도노선은 중국의 중경에서 출발해서 카자흐스탄→러시아→벨로루스→폴란드→독일 두이스부르크(Duisburg)²⁾까지 연결
 - 기존의 중국-유럽 철도 노선보다 1,000km나 짧으며, 기간은 항공수송을 제외하고는 가장 짧은 15일
 - ⑤ 중경 → ⑥ 서안(시안, 西安) → 유럽행

연운항시 철도 화물터미널 건설과 중국-유럽 노선



주 : ① 연운항시, ② 난주(兰州, Lanzhou)³⁾, ③ 알라 산코우, ④ 알마티, ⑤ 중경, ⑥ 서안(시안, 西安)

■ 시사점

- 카자흐스탄은 아·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

- 2) 두이스부르크(Duisburg)는 독일의 라인-루르 공업지대 중에서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시. 오늘날까지도 독일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꼽힐 만큼 각종 공업이 발달
- 3) 중국 간쑤성(甘肅省)의 성도

- 동 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내륙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철도 화물터미널을 이용해 아·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음
 - 내륙국가인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동 터미널을 이용하여 아·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
 - 카자흐스탄은 동 화물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아·태지역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
- 연운항시에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터미널 건설은 한반도의 TKR과 TSR 연결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
- 카자흐스탄은 연운항시에 철도 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, 중국 화물뿐만 아니라, 일본, 한국 등 동북아국가들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의 화물도 수송 가능하여 TKR과 TSR 연결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음

※ **참고자료**

- Потенци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итаем в област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чень большой, - глава КТЖ
- Казахстан стал страной-участницей новой евразийской транс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«Чунцин-Синьцзян - Европа»